



미 증시, 엔비디아,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반등

미국 증시 리뷰

21 일(월)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망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유입되며 나스닥 중심으로 4거래일만에 반등. (다우 -0.11%, S&P500 +0.69%, 나스닥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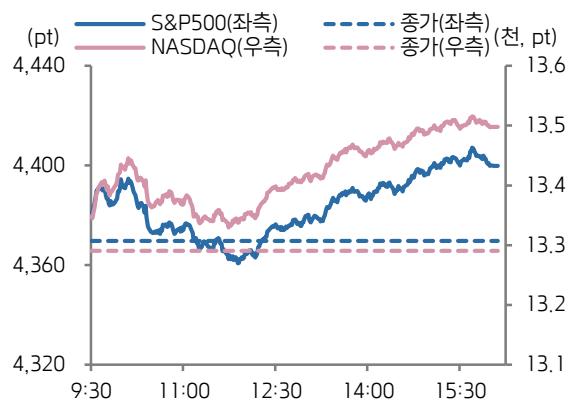
중국 인민은행이 부동산 위기와 경기 둔화 우려에 1년 만기 LPR 금리를 3.45%로 10p 인하, 그러나 5년 만기 LPR 금리는 4.2%로 동결. 또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돋기 위해 1조 5000 억 위안(약 275 조 원)의 특별융자 채권 발행을 허용. 올해 중국 5% 경제 성장을 목표에 대한 우려 확대, 일각에서는 부채와 부동산에 의존하는 기존 성장 공식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중기 성장률이 2~3%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

현지시간 22 일 개최예정인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서 브릭스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회원국 간 교역 시 달러화 비중을 낮추고 현지 통화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 중국은 G7 과의 대결 구도 형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국가는 브릭스 가입 관련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 현재 브릭스 5개국은 전 세계 GDP 의 27%를 차지하는 한편 G7 의 비중은 약 43% 차지.

업종별로 IT(+2.3%), 경기소비재(+1.1%), 통신(+0.8%) 업종 강세, 부동산(-0.9%), 필수소비재(-0.6%), 에너지(-0.6%) 업종 약세. 23 일 실적발표를 앞둔 기대감 유입되며 엔비디아(8.47%)가 급등한 영향으로 AMD(2.63%), 인텔(1.19%), 마이크론(0.58%), 웰컴(0.53%)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이 상승. 애플(0.77%), 알파벳(0.71%), 아마존(1.1%), 메타(2.35%) 등 시총 상위주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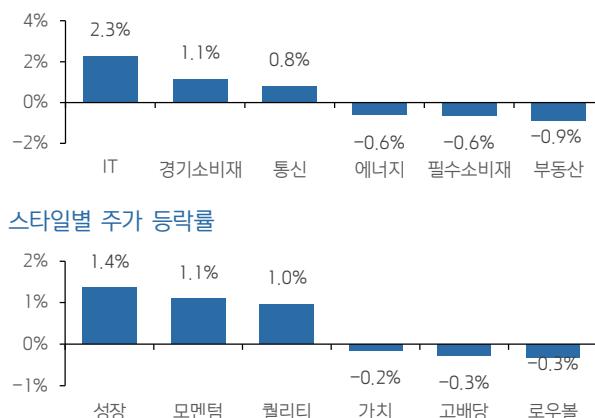
중국 전기차 기업 주가는 중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경쟁심화 우려가 겹치며 약세. 그러나 BofA 가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샤오펑(9.68%)은 폭스바겐의 투자 이후 2025년 흑자전환이 전망된다는 이유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급등. 테슬라(7.33%) 역시 가격 인하와 마진악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사이버트럭 출시와 FSD(완전자율주행)의 채택 확대 등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목표주가 상향조정된 영향으로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08.80	+0.17%	USD/KRW	1,342.73	+0.33%
코스피 200	328.84	+0.13%	달러 지수	103.33	-0.04%
코스닥	888.71	+1.3%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438.92	+2.32%	USD/CNH	7.29	-0.03%
S&P500	4,399.77	+0.69%	USD/JPY	146.20	-0.01%
NASDAQ	13,497.59	+1.56%	채권시장		
다우	34,463.69	-0.11%	국고채 3년	3.790	+6.4bp
VIX	17.13	-0.98%	국고채 10년	3.967	+6.2bp
러셀 2000	1,856.01	-0.18%	미국 국채 2년	5.001	+5.8bp
필라. 반도체	3,560.74	+2.83%	미국 국채 10년	4.338	+8.3bp
다우 운송	15,705.01	+0.03%	미국 국채 30년	4.447	+7.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24.87	+0.28%	WTI	80.72	-0.65%
MSCI 전세계 지수	669.11	+0.35%	브렌트유	84.46	-0.4%
MSCI DM 지수	2,910.52	+0.45%	금	1923	+0.34%
MSCI EM 지수	959.79	-0.48%	은	23.34	+2.67%
MSCI 한국 ETF	61.08	+0.68%	구리	371.85	+0.3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8.0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장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흐름

주요 체크 사항

2. 테슬라, 샤오펑 등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국내 이차전지주에 미치는 영향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및 엔비디아 실적기대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전일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2007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35%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주가 측면에서는 현지시간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 긍정적 흐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매크로 측면에서는 이번주 내내 잭슨홀 경계심리가 시장에 주입되는 과정에서 미 10년물 금리의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염려할 필요가 있음.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제약적인 주가 환경을 만들어낼 것.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8월 잭슨홀 회의 이후 시장은 8주간 1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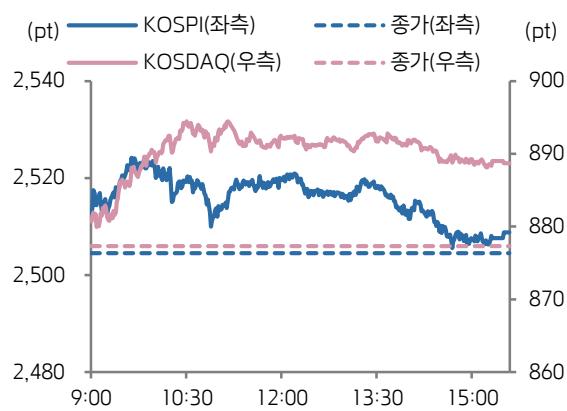
21 일(월) 국내증시는 반발매수세 유입되며 6 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금리상승 부담, 중국 인민은행 LPR 금리 인하폭 실망감 확산되며 상승폭 축소 (KOSPI +0.17%, KOSDAQ +1.30%)

금일 역시 잭슨홀미팅 경계심리와 중국 부동산 위기 우려가 상단을 제한하겠지만, 엔비디아 실적기대감 및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존 주요 주도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 금리를 3.45%로 10p 인하한 반면 5년 만기 LPR 금리는 4.2%로 동결하며 컨센서스 하회하는 결정. 중국 유동성 위기 불안 역시 지속되며 중국 증시의 급락과 함께 국내 항공, 면세, 백화점 등 중국 소비관련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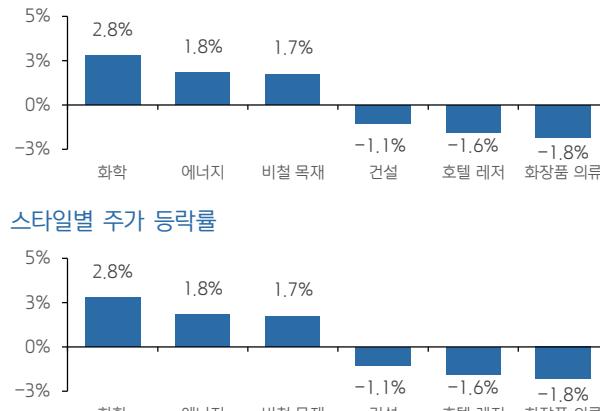
국내 증세 역시 그동안 중국 경기 불안에 연동되어 조정국면이 이어졌지만,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인식 및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특히 이차전지 및 장비, 의료기기 등 테마 중심 장세가 코스닥 반등을 주도.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분기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국내 반도체 및 HBM 관련주는 주도주가 되었었기 때문에 금번 엔비디아 실적 역시 최근 모멘텀에 부재한 반도체 업종에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